

漢文과 학교 문법의 보어 특성 고찰

공민식*

〈차 례〉

1. 서론
2. 보어에 대한 기존 견해
3. 보어의 특성 고찰
4.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고는 형태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관점에서 보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목적어의 일반적인 특성(대상성, 피영향성)을 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의미적 특성 뿐 아니라 통사적 특성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보어는 초점이 되는 서술 대상(주어, 목적어)의 상태를 의미적으로 보충하는 특성이 있다. 이때 서술 대상과 보어는 통사론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보어는 서술 대상을 대신하여 지정·확인하는 방식(대유성)을 통해 의미적인 완결성을 이룬다. 결론적으로 보어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보충성을, 통사론적 측면에서 대유성(代喻性)을 중요한 특성으로 갖는다.

그리고 보어의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문장성분(목적어, 부사어)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대전전민고등학교 교사 / E-mail: riotpolice@hanmail.net

* 문장성분 분류 기준

문장 성분	대상성	괴영향성	대유성	보충성	필수성
목적어	○	○	X	X	○
보어	X	X	○	○	○
부사어	X	X	X	○	X

* 대유성(代喩性)은 본고에서 처음 제시하는 개념으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음.

그러나 보어의 이러한 특성이 보어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보어의 설정은 교과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언어 탐구 과정으로서의 문법 교육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보어의 개념과 특성을 확정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문장 성분의 개념을 고정 불변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적용 가능한 예문들 중심으로 문장성분을 확인하는 결과 중심의 문법 교육이 아닌 보어의 특성을 통해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찾고, 그것을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언어탐구과정으로서의 문법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문장성분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보어의 개념과 특성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교육과정, 문장 성분, 보어, 보충성, 대유성(代喩性), 언어 탐구 능력

1.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 술목 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目的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예: 有, 無)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목 관계의 단어는 어순(語順)이 우리말과 다르다. 술보 관계는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¹⁾

교육과정 보어의 정의를 보면, 불완전 용언 앞에서 의미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 주는 요소로서 보어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통사적 기능을

1) 교육부(2015), 7면.

기반으로 설정된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 비교해 볼 때 의미적인 면만 부각된 개념으로 문장 성분 체계의 내적 문제를 야기한다.²⁾ 즉 목적어의 경우 대상성(對象性)을 기반으로 다른 문장성분과 통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보어의 경우 단순히 서술어를 보충한다는 의미적인 특성만 부각되어 있다. 더구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의미적 공통성(동작, 행위, 상태)이 목적어를 요하는 서술어(동작, 행위, 소유)와 상당 부분 겹치므로, 목적어와 보어 분류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분명함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 학습 내용에서 보어를 제외하거나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보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이 한문 독해력 향상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한문의 경우 고대부터 현대까지 장구한 시간의 격차가 있었고, 동시대의 경우에도 언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역별로 독특한 언어의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대의 문법 용어로 재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문법이란 것이 언어 현상을 토대로 규칙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어느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문법 현상을 규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보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언어 현상이 존재하고³⁾ 또 보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정치하게 언어 현상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어의 설정은 교과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언어 탐구 과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

2) 여기서 문장 성분 체계의 내적 문제라 함은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 문장 성분으로서의 보어의 지위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이다. 가령 보어와 비견되는 목적어의 경우 그 자체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데 반해, 보어는 그 자체보다는 서술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장성분과의 위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보어가 그 자체의 특성에서 논의되지 않고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치우쳐서 논의가 됨으로써 보어 설정 유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가령 '柳成龍爲都體察使'에서 '都體察使'의 경우 보어를 제외한 교육과정 내의 다른 문장성분으로는 문법적 설명이 불가하다.

다. 단순히 보어의 개념과 특성을 확정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가령 ‘君子敏於事’의 경우 ‘事’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군자가 일을 민첩하게 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君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면 ‘군자가 일에 민첩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⁴⁾ 이렇듯 어느 부분에 서술의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 학교 문법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확정하는 태일의 문제라면, 즉 ‘於事’를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문장 성분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문장성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문장 성분에 관한 다양한 문법 지식을 한문 독해에 활용한다면, 예로 든 문장에서 ‘於事’를 목적어로 보았을 때, 보어로 보았을 때 그리고 부사어로 보았을 때 그 미묘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문 독해력 향상은 물론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보어의 개념과 범위는 한문의 기본 문형 설정에도 영향을 준다.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문장 유형을 학습하는 이유는 문장이나 문단의 정확한 이해와 표현을 위한 것이다. 문장의 기본 단위인 문장 성분과 이들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완결된 의사소통단위로서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보어가 없을 시 한문의 기본 문형은 ‘주술 구조’와 ‘주술목 구조’만 남게 된다. 단순한 기본 문형 제시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혼란을 적게 가져올 수는 있으나 심화된 언어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문장 성분을 고정 불변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적용 가능한 예문들 중심으로 문장성분을 확인하는 결과 중심의 문법 교육이 아닌,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능력 향상의 관점에서 보어의 개념과 특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4) ‘事’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가령 ‘놀이’나 ‘공부’가 아닌 ‘事(일)’이라는 대상이 해석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즉 군자가 놀이를 민첩하게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민첩하게 할 수도 는데, ‘놀이’나 ‘공부’가 아닌 ‘일’이라는 대상을 민첩하게 한다는 것으로 초점화해서 해석할 수 있다. ‘군자’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 과정의 보어 개념을 정의내릴 수 있을까? 보어가 문장성분으로 필요하다면 통사적 기능은 무엇이고, 의미적인 공통점은 무엇인가? 주어나 목적어가 공통적인 의미, 통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보어가 문장성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어의 개념과 특성부터 다시 고찰해야 한다. 즉 보어가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부류의 문장 성분으로 규정되려면 의미적 특성 뿐 아니라 통사적 특성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보어의 개념 및 범주 설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특성을 형태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본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 보어에 대한 기존 견해

본 논문은 보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나, 보어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목적어와 관련이 있기에 함께 기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⁵⁾

먼저 이가원(1987)은 설명어의 목적 대상이 되는 성분을 객어(客語)라 하였는데, 객어의 하위에 객어(客語), 목적어, 보어를 설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객어 중에서도 타동사의 목적이 되는 성분을 목적어, 불완전자동사를 보충하는 말을 보어, 우리말의 부사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객어(客語)⁶⁾라 하였다.

정우상(1990)은 문장의 구조 성분을 기본 유형과 종속 유형으로 나누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기본 유형이라 하였다. 기본 유형 중 동사의 뒤에 위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말을 목적어로, 동사의 뒤에 위치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을 보충해 주는 성분을 보어로 보았다. 또한 同動詞(有/無)가 사용되어 ‘존재’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앞의 성분을 주어로, 뒤의 성분을 보어로 보았다.

5) ‘보어에 대한 기존 견해’는 공민식(2016), 193~226면에 정리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

6) 이가원(1987), 20면, “‘舜臣在海上’의 海上은 객어이다. 漢文에서는 名詞, 또는 前置詞+名詞로 형성된 副詞語를 특히 客語라 한다.”

특히 전치개사 ‘於, 于, 乎’ 등이 명사류와 배합된 개사구조의 경우 보어의 구실을 하느냐, 목적어나 부사어의 구실을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부사어로 보는 黎錦熙의 견해를 소개하였다.⁷⁾ 정우상의 경우 부사어는 한문 구문 구조상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어는 서술어의 뒤에 위치한다는 관점에서 개사구조를 서술어를 한정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술어 뒤에 복수의 문장 성분들이 이어진 경우, 목적어가 두 개 있다고 보기보다는 목적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구조로 보았다. 가령 ‘堯讓天下於許由(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양도했다.)’에서 天下를 목적어로, ‘於許由’를 보어로 보았다.

송병렬(1996)은 ‘한문은 한문 자체로 보아야 한다. 그 문장 성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한문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술어 뒤의 명사성 성분을 모두 ‘명사어’라 부르자고 하였다. 즉 서술어 뒤에 오는 단어나 구절은 명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러한 명사성의 단어들은 기존의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분류하느니 아예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⁸⁾ 후속 연구(2001)에서는 한문의 경우 다양한 해석과 이중적인 구조를 지닌 문장이 많다고 하면서, 학교 문법에서는 가급적 문장 성분 분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 하에 두 개의 문장 성분 분류 안을 제시하였다.⁹⁾

7) 정우상(1990), 164면, “黎錦熙는 비교문법에서 (개사구조를) 부사로 설정하고 詞나 어구가 句中の 동사(혹은 형용사, 부사)를 수식 또는 한정하는 것으로 시간, 처소, 원인, 방법, 혹은 그 성태, 정도, 효과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사성의 附加語라 하고, ‘王坐於堂上’, ‘齊宣王見孟子於雪宮’에서 ‘於堂上’, ‘於雪宮’을 부사어로 보고 ~”

8) 송병렬(1996), 18면, ‘명사류는 두가지가 있는데, 서술어 앞에 쓰이는 주어의 명사류와 서술어 뒤에 오는 명사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단독 서술어이거나 아니건 간에) 앞에 쓰이는 확실한 주어들을 제외하면, 서술어 뒤에 쓰이는 명사성의 단어들은 기존의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번거롭게 분류하느니 보다 아예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라면 ‘명사어’라고 하고자 한다.’

9) 송병렬(2001)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의 1안과, ‘주어, 서술어, 빈어, 부사어, 관형어’의 2안을 제시하였다. 2안의 경우 목적어, 보어를 합한 개념인 빈어를 사용하였다.

정만호(2004)는 빈어와 보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중 양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두 성분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빈어와 보어의 구분은 동사의 성격(타동사, 자동사)이나 형태적 기준(개사의 유무)을 통해 구분할 수 없으며,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빈어와 보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쌍빈어와 보어도 구분하였는데, 쌍빈식 문장은 연속된 두 성분 사이에 문법적 관계가 없으며(상호 독립적), 직접빈어의 경우 서술어의 동작에 의해 이동이 이루어짐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서술어 뒤의 수사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쌍빈어가 아니라 보어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후속연구(2006)에서는 중국의 양백준·하락사의 분류 방법을 바탕으로 서술어 뒤에 위치한 詞의 詞性和 그것이 서술어와 결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언급하였다.

정순영(2008)의 경우 교육과정의 빈어(목적어), 보어 개념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방안으로 술빈관계를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인식, 비교, 칭위, 사유)를 나타내고, 빈어는 그 대상이 된다.’로 술보관계를 ‘서술어는 상태나 동일관계를 나타내고, 보어는 주어의 상태 또는 존재, 소유나 동일관계의 의미를 보충하여 준다.’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서술어의 지배대상이 되지 않는 비동작성의 상태, 존재, 소유, 연계를 나타내는 서술어 다음에 오는 성분을 빈어가 아닌 보어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중(2012a)의 경우 한문에서 무엇을 보어로 볼 것이냐가 아닌 한문에 과연 보어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보어’라는 용어를 상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안으로 목적어와 보어를 하나로 통일하여 목적어라는 개념을 쓰는 방안, 혹은 또 다른 용어, 예컨대 ‘客語’를 상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후속연구(2012b)에서는 술보관계는 전형적인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의미상 ‘객체(客體)’를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는 ‘出, 入, 上, 下, 至, 在, 坐, 歸, 走’와 ‘多, 小, 易, 難’ 등의 술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재철(2014a, 2014b)은 통사구조 짜임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분석 중, ‘술보구

조' 짜임의 어휘는 신증을 기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동사의 지배 관계 입장에서 볼 때, '有/無 + NP' 구조를 술목관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문에서 서술어가 敎示, 授與의 의미일 경우, 목적어 다음에 오는 성분(보어)이 대체로 목적어 앞으로 도치되어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중 목적어를 인정하지 않고, 주술목보 구조의 도치로 설명하였다.

공민식(2016)은 교육과정에 기술된 술목 관계의 문제점을 '有/無' 서술어 중심으로 살펴보고, 교육과정 상의 술목 관계 설정과 그간 논란이 되었던 예시문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타동성(Transitivity)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참여항(Participants), 동작성(Kinesis), 행위자성(Agency), O의 피영향성(O-affectedness)이라는 한문의 타동성 자질 4가지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소유의 '有/無'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서술어와 그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밝혀내었다.

3. 보어의 특성 고찰

1) 문장 성분 구분 기준으로서의 특성 고찰

문장은 상호 공기 관계를 이루는 요소(문장성분)들의 선적 배열체로 구성된다. 특히 문장의 구조적 중심으로서 서술어는 더 큰 언어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 특정한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지닌 일정한 수의 문장성분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결합가라 한다. 결합가는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항의 수와 문법적 형태를 규정하고, 후자는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논리·의미적 관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결합가 이론은 문법 현상을 다룰 때 표면적인 현상으로서의 통사(統辭)와 내용적인 측면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¹⁰⁾

한문에서 주술목 구조든, 주술보 구조든 필수적인 논항이 서술어의 앞과 뒤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항의 수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한문구조는 영어와 같은 굴절어도 아니고, 한국어처럼 체언상당어구에 조사가 붙는다거나 어간에 어미가 붙는 교착어(膠着語)도 아니므로 문장성분을 구분할 때 형태적인 구분도 무의미하다.

결국 보어를 다른 문장성분과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서술어와 참여항(participant)¹¹⁾이 갖는 논리·의미적 관계이다. 특히 한문의 경우 어순이 문장 성분 구분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어는 그 개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술어 앞에 위치함으로써 쉽게 구분이 되므로 제외한다면, 결국 보어가 문장성분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서술어 뒤)에 놓인 목적어와의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목적어의 경우 개념에 있어 통사적, 의미론적으로 명확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것과 같은 위계에서 보어의 문장 성분 특성을 논리 의미 관계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고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예문을 중심으로 보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통사적 기능을 기반으로 목적어와 보어를 설정함으로써 문장성분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1) 목적어의 특성

본고는 보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나, 보어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목적어와 관련이 있기에 함께 기술하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특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목적어의 특성(대상성과 피영향성)을 한문에서도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10) 공민식(2016), 201면.

11) 참여항(participant)이란 통사론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을 가리킨다. 비슷한 개념으로 논항(Argument)이 있다.

술목 관계는 서술어와 목적어(目的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예: 有, 無)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¹²⁾

교육과정의 목적어의 정의를 보면,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어 뒤에 위치한 서술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상에는 서술어와 목적어의 논리·의미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

문장성분을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서술어와 논항이 갖는 논리 의미 관계이며, 특히 목적어 구분을 위해서는 서술어의 타동성과 논항의 의미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어는 타동성이 있는 서술어의 지배(government)를 받을 때 그 타동성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동성 서술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 목적어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타동성 개념은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 사이의 관계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어의 개념 및 범주 설정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개념이다. 즉 통사적 관점에서 문장 성분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타동성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의 영향이 행위주(Agent)로부터 목적어인 대상(Theme)으로 옮겨지는(transferred)것을 뜻한다.¹³⁾

타동성은 타동사와는 다른 개념인데 타동사는 품사 분류 개념이고, 타동성은 문장 성분 간의 논리·의미적 관계 개념이다. 타동사는 단어 분류 개념이므로 개별적인 단어가 동사냐 형용사냐, 타동사냐 자동사냐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러나 타동성은 문장 속에서 각 성분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므로, 서술어와 서술어 앞, 뒤 성분 간 총체적인 의미 관계에 집중한다.

종합해 보면 목적어는 타동성이 있는 서술어의 지배(government)를 받을 때

12) 교육부(2015), 7면

13) 이러한 타동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Hopper & Thompson(1980)의 타동성 분석인데, Hopper & Thompson(1980)은 타동성에 대한 전통적 직관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미적 구성 성분들을 분석해 낸으로써 타동성 연구의 典範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문의 경우 공민식(2016)이 타동성 개념을 적용하여 한문의 타동성 자질 4가지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공민식이 제시한 한문의 타동성 자질은 참여항(Participants), 동작성(Kinesis), 행위자성(Agency), O의 피영향성(O-affectedness)이다.

그 타당성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타동성 개념을 활용해 목적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자.

1)

- ①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혜왕을 보다] 〈孟子〉
- ② 齊人 伐燕取之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쳐서 취하다.] 〈孟子〉
- ③ 周公相武王 [주공이 무왕을 돕다.] 〈孟子〉
- ④ 孟子 對曰王 好戰 請以戰喻 [맹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왕이 싸움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싸움으로 비유하겠습니다.] 〈孟子〉
- ⑤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믿었다.”] 〈論語〉

①에서 행위주(주어)는孟子이며 그 대상은梁惠王이다. 梁惠王은 孟子의 영향권 내에 있는 대상이다. ②에서 행위주는齊人이고, 대상은燕으로, 행위주의 영향력이 직접 대상에 미치고 있다. ③의 행위주는‘周公’이고, 대상은‘武王’이다. ‘武王’은 행위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④의 행위주는‘王’이고, 대상은‘戰’인데, ‘戰’이 추상명사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주의 의도가 있고 통제 가능한 영향권 내에 戰이 있으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⑤ 역시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고는 ‘피영향성’의 개념을 가시적인 영향 뿐 아니라, 영향력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영향력 내의 대상은 피영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영향력 내의 대상을 판단하는 방법 및 기준은 공민식(2016)에서 ‘행위주성’과 ‘피영향성’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서술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행위주	대상	행위주와 대상의 논리 의미 관계	대상(목적어)의 특성
①	孟子	梁惠王		대상성, 피영향성

②	齊人	燕	행위주의 서술대상에 대한 영향성 (= 서술 대상의 피영향성)	
③	周公	武王		
④	王	戰		
⑤	吾	其言, 其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목적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대상성’과 ‘피영향성’을 들고 있는데, 많은 예문 분석을 통해 한문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2)와 같다.

2) 한문 목적어의 특성

- ① 대상성
- ② 피영향성
- ③ 필수성

첫째 대상성이다. 목적어는 행위주(주어)의 영향권에 있는 서술어의 대상이다. 이는 한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이다.

둘째 피영향성이다. 피영향성은 행위주(주어)와 대상(목적어)과의 긴밀한 관계 속성에서 기인한다. 특히 대상이 가시적인 변화를 겪을 경우 두드러지는데, 대상(목적어)을 주어로 하여 그것이 영향을 받은 결과를 상정해 보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영향받음’이 실제적일 필요는 없다. 주어(행위주)가 대상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범위 내의 대상까지 포함한다.

셋째 필수성이다. 한문타동성 자질 중 참여항 수와 관련이 있다. 이미 교육과정 및 학교 문법에서, 목적어는 주성분으로서 필수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이후 본 고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2) 보어의 특성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 보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보 관계의 단어도 어순이 우리말과는 다르다.¹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육과정에서는 보어를 불완전 용언 앞에서 의미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 주는 요소로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통사적 기능을 기반으로 설정된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 비교해 볼 때 의미적인 면만 부각된 개념이기에 문장 성분 체계의 내적 문제를 야기한다. 가령 목적어의 경우 대상성(對象性)을 기반으로 다른 문장성분과 통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보어의 경우 단순히 서술어를 보충한다는 의미적인 특성만 부각되어 있다.

보어 개념의 공통적인 전제는 필수성이다. 바로 부사어와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이다. 부사어와 보어 모두 의미적 보충성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는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보어는 생략하게 되면 의미적 완결성을 이루기 어렵다.

다만 필수성과 의미의 보충성만으로 보어를 규정짓기에는 다른 문장성분과의 위계가 맞지 않는다. 보어가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부류의 문장 성분으로 규정되려면 용언의 의미적 특성이 아니라 통사적 특성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어의 개념과 범주 설정에 있어 의미적인 보충성 외에 통사적인 기능을 찾아낼 수 있다면, 문장 성분과 관련된 한문 문법 기술이 좀더 체계화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통사적인 관점에서 의미적인 보충성이 어떤 성분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滄海化桑田 [창해가 뽕나무밭이 되다.]

14) 교육부(2015), 7면.

위 예문의 경우, 주어는 ‘滄海’, 서술어는 ‘化’, 서술어 뒤에 ‘桑田’이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부족하며, ‘桑田’을 통해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문장 성분 간 논리 의미적 관계를 살펴 보면, ‘桑田’은 ‘滄海’의 다른 표현으로서 서술 대상인 ‘滄海’의 정체를 밝히면서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1)

- ① 子爲誰 [그대는 누구인가] 〈論語〉
- ② 告子曰 性 猶湍水也 [본성은 단수(소용돌이 치는 물)와 같다.] 〈孟子〉
- ③ 丞相取燕王女爲夫人 [승상은 연나라 왕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史記〉
- ④ 富貴不歸故鄉 如衣錦夜行 [부귀해지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다.] 〈漢書 項籍傳〉
- ⑤ 北溟有魚 其名爲鯨 [북쪽 바다에 고기가 있어 그 이름이 곧이다.] 〈莊子〉
- ⑥ 予未得爲孔子徒也 [나는 공자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孟子〉
- ⑦ 王在靈囿 [왕이 영유에 있다.] 〈孟子〉
- ⑧ 予有戒心.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 〈孟子〉

①~⑥에서 서술 대상은 ‘子’, ‘滄海’, ‘性’, ‘燕王女’, ‘富貴不歸故鄉’, ‘孝’, ‘予’로서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성분으로서 서술어 뒤에 위치하고 있는 ‘誰’, ‘湍水’, ‘夫人’, ‘衣錦夜行’, ‘百行之源’, ‘孔子徒’는 이러한 서술 대상의 다른 표현이다. 즉 서술대상의 다른 지칭 표현으로서 서술 대상의 정체를 밝히면서(지정의 방식) 구체화하고 있다.

⑦의 경우 王의 존재가 靈囿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⑧에서는 予의 심리 상태가 戒心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⑦, ⑧ 모두 ‘확인’의 방식을 통해 서술 대상의 정체(상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서술 대상	보충 성분(보어)	서술 대상과 보충 성분간의 논리 의미 관계		
①	子	誰	子 = 誰	지정 (등치)	서술 대상을 대신하여 의미적 보충 설명(지정, 확인)을 통해 서술 대상 의 정체를 구체화함.
②	性	湍水	性 = 湍水	지정 (등치)	
③	燕王女	夫人	燕王女 = 夫人	지정 (등치)	
④	富貴不歸故鄉	衣錦夜行	富貴不歸故鄉 = 衣錦夜行	지정 (등치)	
⑤	其名	鯢	其名 = 鯢	지정 (등치)	
⑥	予	孔子徒	予 = 孔子徒	지정 (등치)	
⑦	王(在)	靈囿	王 _ㄷ 靈囿	확인 (존재 상태)	
⑧	予(心)	戒心	予 _ㄷ 戒心	확인 (소유 상태)	

이렇듯 보어는 지정, 확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서술 대상의 정체를 구체화시킴으로써 통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대유성(代喻性)이라 칭하면서 보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삼고자 한다. 즉 주술보 구조에서는 서술 대상인 주어에 대신해 대상의 정체를 밝히고, 주술목보 구조에서는 목적어를 대신해 목적어 뒤에서 대상의 정체를 밝히는 특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2)와 같다.

2) 한문 보어의 특성

- ① 대유성(代喻性)
- ② 보충성(의미적)
- ③ 필수성

첫째 대유성이다. 보어는 서술 대상 (주어나 목적어)을 대신하여 지정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서술 대상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능을 한다.

둘째 보충성이다. 보어는 서술 대상을 보충 설명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한다.

셋째 필수성이다. 보어가 생략될 경우 문장의 의미는 완성되지 못한다. 부사어

가 서술어에 대한 수식 기능으로서 수의적 성분인 것과 대조되는 특성으로 부사어와의 구분 시 활용된다.

2) 예상되는 반론과 보충 설명

앞 절에서 대상성, 피영향성, 필수성이라는 목적어의 특성과, 대유성, 보충성, 필수성이라는 보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문장성분(목적어, 보어) 구분에 있어 많은 논란이 되었던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개사구조

보어에 대한 논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사구조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법에서는 서술어 뒤 개사의 개입 없이 바로 오는 것을 빈어(목적어), 개사와 결합한 명사성 성분 전체를 보어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단어가 아닌 구가 문장성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어나 영어에서도 조사나 전치사(단어)를 포함한 명사성 어구 전체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한문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문은 첨가어가 아니므로, 형태적 특징으로 문장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데, 다른 어떤 성분도 형태적 특징으로 분류하지 않다가 유독 개사구조만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개사구조와 관련해 하락사(2006)의 아래 견해는 개사가 개사 뒤의 명사성 성분에 대한 강조로서 특정 어기를 강조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於의 빈어는 실제로는 술어 동사의 객체빈어이지만 일정한 문맥에서 빈어에 대한 강조 혹은 기타 원인 때문에 於를 사용하여 객체 빈어를 이끌어 내어서는 술보구조로 변환되게 된다. 이러한 문장에서 於는 주로 어기를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¹⁵⁾

따라서 개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미적, 통사적 기능으로 문장성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음 예문을 보자.

王, 待吾以國土 [왕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以國土’가 보어)

王, 以國土待吾 [왕이 국사로 나를 대우하다.] (‘以國土’가 부사어)

2007 교육과정에서는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수식하는 개사구조를 부사어,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개사구조를 보어로 보았다. 문장 성분의 분류를 의미적, 통사적 기능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어순에 의해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보어는 주성분으로서 문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부사어는 부속성분으로 서술어 앞에서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통사적인 기능 면에서 전혀 다른 성분을 단순히 어순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고는 목적어가 행위주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면, 보어는 서술 대상(주어 또는 목적어)을 대신하여 지정·확인의 방식을 통해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으로 정의한다. 위 문장에서 서술의 대상은 ‘吾’이다. ‘以國土’는 서술 대상인 ‘吾’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지정,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즉 ‘以國土’는 필수적 성분이며, ‘吾 = 以國土’로서 대우성을 나타내고 있다. 문장 성분을 어순이 아닌, 논리 의미적 관계 (통사성, 의미성)로 파악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위 예문의 경우 어순에 상관없이 보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以國土’의 어순이 바뀐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보어도 치를 상징함으로써, ‘以國土’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도치시킨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보어 도치’를 학교 문법 용어로 특정 짓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의미 강조를 위한 도치’라는 항목으로 교수학습요소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다. 즉 한 문에서는 도치의 방법을 사용해 의미를 강조하거나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순에 의한 문장성분 파악보다는 통사·의미적 기능으로 문장성분을 정

15) 何樂士(2006), 『古代漢語虛詞詞典』, 語文出版社; 김성중(2012a), 647면 재인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以國士’에 대한 문장 성분 분석

‘以國士’	특성 여부	문장 성분
대상성	×	보어
피영향성	×	
대유성	○	
보충성	○	
필수성	○	

같은 방식으로 다음 예문들을 분석해 보자.

1)

- ① 王坐於堂上 [왕이 당상에 앉아계시다.] <孟子>
- ② 君子敏於事 [군자는 일을 민첩하게 하다.] <論語>
- ③ 季氏富於周公 [계씨가 주공보다 부유하다.] <論語, 先進>
- ④ 百姓皆以王爲愛也 [백성이 모두 왕을 인색한 사람으로 여기다.] <孟子>

일반적으로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수식을 한다는 점에서, 개사구조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후치수식하는 부사어도 있고,¹⁶⁾ 개사구조자체가 단어가 아닌 구라는 점에서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가원(1987)은 전치사와 명사로 형성된 구조(개사 구조)를 부사어(객어)로 보았는데¹⁷⁾, 가령 ‘苛政猛於虎’에서 於虎를 보어가 아닌 객어라 하면서 객어와 보어를 구분하였다.¹⁸⁾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개사구조를 바라보고 있다.

16) ‘君美甚 徐公何能及君也’ [그대는 몹시 아름답으니 서공이 어찌 당신에 미치겠습니까?]에서甚是 부사어로서 후치수식하고 있다.

17) 이가원(1987, 20면; 2000, 25면), “漢文에서는 名詞, 또는 前置詞 + 名詞로 형성된 副詞語를 특히 客語라 한다.”

18) 이가원(2000, 103면), ‘苛政猛於虎에서 於虎를 보어라고 하나 그것은 객어이며, 보어가 아니다.’

①에서 ‘於堂上’은 서술 대상인 王을 대신하여 문장의 의미를 보충하는 특성이 없으므로 보어가 아니며, 단지 쏘를 수식하는 보충성분으로 생략이 가능하기에 부사어로 판단된다.

②에서 ‘於事’는 ‘事’라는 대상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다면 ‘일을 민첩하게 하다’로 해석함으로써 목적어로 판단할 수 있다.

③에서 서술의 초점은 季氏이고, 季氏가 부유하다 것이 핵심이다. 周公은 서술 대상인 季氏와 관련성이 없으며(대유성이 없음), 단지 부수적 성분으로서 의미를 보충하고 있다.

④의 서술 초점은 ‘王’인데, ‘愛’는 서술 대상인 ‘王’을 대신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의미적 완결성을 이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대상성	피영향성	대유성	보충성	필수성	문장 성분
①	於堂上	×	×	×	○	×	부사어
②	於事	○	○	×	×	○	목적어
③	于周公	×	×	×	○	×	부사어
④	以王	○	○	×	×	○	목적어
	愛	×	×	○	○	○	보어

(2) 쌍빈어(직접 목적어, 간접목적어 구조) 구조와 술목보 구조

서술어 뒤에 여러 개의 문장 성분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는 주술목보 구조(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보어)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도 쌍빈어 또는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개념을 활용하여 목적어 뒤의 성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① 后稷教稼穡於民

② 后稷教民稼穡

<孟子>

①은 정치 문장이고, ②는 도치문장이다. 일반적으로 도치될 때 전치사가 생략되는 것으로 설명된다.¹⁹⁾ ①과 ② 모두 ‘后稷教民(후직이 백성들을 가르쳤다)’와 ‘后稷教稼穡(후직이 가색을 가르쳤다)’의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문장으로 보면, 民과 稼穡은 목적어로 판단하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결합해서 해석하면 그 양상이 다르다. 먼저 ①과 ②는 ‘후직이 백성에게 가색을 가르쳤다’와 ‘후직이 백성을 가색을 가르쳤다’는 의미의 복수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백성’보다는 ‘후직’과 ‘가색’에 해석의 초점을 맞추고 民을 부사어, 稼穡을 목적어로 본 반면, 후자는 ‘后稷’은 물론, ‘民’과 ‘稼穡’ 두 대상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民’과 ‘稼穡’ 둘 다 목적어로 보고 있다. 다만 ②의 경우 民을 강조하기 위한 도치 문장이라는 점에서 ‘후직이 백성에게 가색을 가르쳤다’보다는 ‘후직이 백성을 가색을 가르쳤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民(백성)의 대상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며, 이때 서술어 뒤의 성분인 ‘民’과 ‘稼穡’은 목적어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장에서 언급했지만, 문장 성분의 개념을 고정된 불변의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것을 단순 암기하는 결과 중심의 문법 교육이 아닌 목적어와 보어의 특성을 통해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찾고, 그것을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언어탐구 과정으로서의 문법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문장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2)

- ① 臣聞之胡斲 [신이 그것을 호흠에게(호흠로부터) 들었다.] 〈孟子〉
- ② 孟子曰 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 爲巨擘焉 [제齊나라 士 중에서 나는 반드시 중자를 으뜸(巨擘)으로 여긴다.] 〈孟子〉
- ③ 宜乎百姓之謂我愛也 [당연하도다! 백성이 나를 인색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孟子〉
- ④ 善人教民七年, 亦可以即戎矣 [선인이 백성을 칠 년 동안 가르치면 또한 전쟁에

19) 이가원(1987: 103), 정우상(1990: 168), 안재철(2014b: 257) 참조

나아가게 할 수 있다. 〈論語〉

- ⑤ 孟子曰 梓匠輪輿 能與人規矩 不能使人巧 [목수나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
에게 規矩를 줄 수 있지만, 남으로 하여금 교묘한 기술을 터득하게 할 수 없다.]
〈孟子〉

- ⑥ 堯讓天下於許由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양도했다.] 〈莊子〉

그리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분석 대상	대상성	피영향성	대유성	보충성	필수성	문장 성분
①	之	○	○	×	×	○	목적어
	胡齷	×	×	×	○	×	부사어
②	以仲子	○	○	×	×	○	목적어
	巨擘	×	×	○	○	○	보어
③	我	○	○	×	×	○	목적어
	愛	×	×	○	○	○	보어
④	民	○	○	×	×	○	목적어
	七年	×	×	×	○	×	부사어
⑤	人	×	×	×	○	×	부사어
	規矩	○	○	×	×	○	목적어
⑥	於許由	×	×	×	○	×	부사어
	天下	○	○	×	×	○	목적어

(3) 서술어 뒤에 나타나는 동사, 형용사, 수량사 구조

- ① 富豪皆爭鬻財 [부호들이 모두 다투어 재물을 숨겼다.] 〈漢書〉
② 王拜手稽首曰 [왕이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尚書〉
- ① 天下歸殷久矣 [온 천하가 은나라로 돌아가 버린지가 오래 되었고] 〈孟子〉

② 暴其民甚 則身弑國亡 [자기의 백성에게 포악한 것이 심하면 결국 그 몸은 시해를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 〈孟子〉

3) ① 善人教民七年, 亦可以即戎矣 [선인이 백성을 칠 년 동안 가르치면 또한 군대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 〈論語〉

② 兵號十萬 [군사가 십만이라 한다.] 〈高麗史〉

1) ①과 ②는 동사 서술어 다음에 동사가 이어진 구조로, 중국어법에서는 뒤에 이어진 동사를 보어로 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두 동작의 연결이나 복수의 서술어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2) ①에서 歸라는 동사서술어 뒤에 久라는 형용사가 왔는데, 중국의 周法高는 久를 보어로 보았다.²⁰⁾ 그러나 동사 서술어 뒤 ‘형용사 보어’라는 예외적 형태의 문법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서술어’로 보는 것이 문법적 사항의 충돌을 피하는 합리적 설명이라고 본다. ②역시 十萬을 보어가 아닌 서술어로서 설명할 수 있다.

3)의 ①은 목적이 民 뒤에 七年이라는 수량사가 온 것인데, 이 역시 七年이 서술 대상(民)과 문법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단지 서술어를 수식하여 의미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므로 보어가 아닌 부사어로 설명할 수 있다.

②는 병의 숫자가 10만이라는 것이므로 ‘兵 = 十萬’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즉 十萬이 元兵을 대신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어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보어의 설정은 교과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언어 탐구 과정으로서 문법 교육적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보어의 개념과 범주를 확정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20) 周法高(1972, 156~190면), 『中國古代語法—造句編(上)』, 台聯國風出版社; 정순영(2008, 158면) 재인용.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즉 보어를 포함해 문장 성분에 관한 다양한 문법 지식을 한문 독해에 활용한다면, 가령 어떤 성분을 목적어로 보았을 때, 보어로 보았을 때 그리고 부사어로 보았을 때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문 독해력 향상은 물론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 능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형태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관점에서 보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목적어의 일반적인 특성(대상성, 피영향성)을 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의미적 특성 뿐 아니라 통사적 특성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보어는 초점이 되는 서술 대상(주어, 목적어)의 상태를 의미적으로 보충하는 특성이 있다. 이때 서술 대상과 보어는 통사론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보어는 서술 대상을 대신하여 지정 확인하는 방식(대유성)을 통해 의미적인 완결성을 이룬다. 결론적으로 보어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보충성을, 통사론적 측면에서 대유성(代喻性)을 중요한 특성으로 갖는다.

그리고 보어의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문장성분(목적어, 부사어)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문장성분 분류 기준

문장 성분	대상성	피영향성	대유성	보충성	필수성
목적어	○	○	×	×	○
보어	×	×	○	○	○
부사어	×	×	×	○	×

그러나 보어의 이러한 특성이 보어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확정적이

고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문장성분에 대한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장성분에 대한 지식을 활용
해 한문 독해를 좀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언어적 탐구 능력을 향상하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고정불변의 보어 개념을 확정한 후 그 범주 안에서 적용
가능한 예문들 중심으로 문장성분을 확인하는 결과 중심의 문법 교육이 아니라,
보어의 특성을 통해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찾고, 그것을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언어탐구과정으로서의 문법 교육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아우르는 용어나 개념으로 가르치고, 고등학
교 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문장성분을 구분해보는 식으로 학
습의 위계를 둘 필요가 있다. 가령 이가원(1987)은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구분
하면서도 이를 아우르는 개념인 객어(客語)를 함께 사용하여 문장성분을 체계화
하였는데,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²¹⁾

본고의 주목적이 목적어와 비견되는 보어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론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에 문장 성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1997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 외국어(영어), 재량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
_____(1997b),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한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a),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및 제2007-79호에 따른 호에 중학
교 교육과정 해설(V) - 외국어(영어), 재량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
- 교육과학기술부(2008b),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㉓-
한문』.

21) 이가원(1987, 20~21면; 2000, 25면).

- _____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7] 한문과 교육과정』.
- 공민식(2016),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유(有)/무(無) + 목적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타동성의 관점에서 본 ‘유(有)/무(無) + 목적어’』, 『한문학논집』 45권 0호, 근역한문학회, 193~226면.
- 김성중(2012a), 『한문 문법에서의 보어 개념 재고-한문과 학교문법과 관련하여-』, 『한자한문교육』 2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_____ (2012b), 『2009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성취 수준의 내용과 체계 분석-어휘영역』, 『漢字漢文教育』 29.
- 박은석(2014), 『현대 중국어 사동문과 타동성』, 『언어와 정보사회』 21권0호,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83~111면.
- 송병렬(1996), 『教科書 漢文 文法에 대한 再考』, 『한문교육연구』 10, 한국한문교육학회.
- _____ (2008),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중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중심으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 _____ (2001), 『바람직한 문장구조 및 성분론』, 『한문교육연구』 17권 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19~137면.
- 안재철(2001), 『한문문법의 통사론 교육론 연구』, 『한문교육연구』 42권, 한국한문교육학회.
- _____ (2014a), 『韓國 漢文文法の 形態論 教育論 研究』, 『漢字漢文教育』,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_____ (2014b), 『漢文文法の 統辭論 教育論 研究』, 『한문교육연구』 42권, 한국한문교육학회, 247~276면.
- 양광석(2003), 『한문문법론』, 관동출판사.
- 이가원(1987/2000), 『한문신강』, 신구문화사/보고사.
- 정순영(2009), 『개정 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품사’의 교수·학습내용에 관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18.
- _____ (2008),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빈어와 보어의 설정문제-』, 『한문교육연구』 31,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만호(2004), 『빈어와 보어의 구분에 관한 소고』, 『한문교육연구』 2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 _____ (2006), 『한문의 문장성분 분류』, 『한자한문교육』 16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정우상(1990), 『한문의 구문구조 연구』, 『한문교육연구』 4권, 한국한문교육학회.
- _____ (1990), 『한문구조문법연구』, 동아출판사.
- 최상익(2008), 『漢文解釋講話』, 한울아카데미.
- 楊伯峻·何樂士(2001), 『古漢語語法及其發展』(수정본), 語文出版社.
- 黃六平(1981), 『漢語文言語法綱要』, 臺灣 華正書局有限公司.
- Kalevi Tavainen, 이점출 譯(1991), 『의존문법개론』, 한신문화사.

Consideration of Complement Characteristics of Chinese Classics and School Grammar

Kong, Min-sik*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 of a complement from the morphologic, semantic, syntactic perspective. Particularly,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e general characteristic(objecthood, affectedness) of an object, which is commonly acknowledged in most of the languages, in Chinese classics as well, and in case of a complement, this study could draw a conclusion as follows by explaining it(a complement) structurally based on a syntactic characteristic, not to mention the generally acknowledged semantic characteristic.

A complement has a characteristic of semantically supplementing the state of its focus—an object for description(subject, object). At this moment, the object for description and a complement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each other syntactically, and a complement achieves semantic completion in place of an object for description through the way of designation & confirmation (synecdochic nature). Conclusively, a complement has a supplementary nature from a semantic aspect, and a synecdochic nature from a syntactic aspect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 Daejeon JEONMIN High School / E-mail: riotpolice@hanmail.net

In addition, on the basis of such a characteristic as a complement, the classification standard of a sentence constituent is presented as follows:

* Classification Standard of Sentence Constituent

Sentence Constituent	Objecthood	Affectedness	Synecdochic Nature	Supplementary Nature	Essentiality
Object	O	O	X	X	O
Complement	X	X	O	O	O
Adverbial Phrase	X	X	X	O	X

* 'Synecdochic Nature(代喻性)' is the first concept presented in this study, and its details will be touched upon later.

However, such a characteristic of a complement should not be accepted as a definite, absolute condition in setting up the concept and category of a complement.

Complement setting has big significance from the grammar education aspect as the language inquiry course other than a subject content. Setting up a complement provides a precious opportunity to improve the ability to explore the phenomenon of a language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ther than ending in simply finaliz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a complement.

Ultimately, it's necessary to look for the function and meaning as a sentence constituent through the characteristic of a complement, and to concentrate the function and meaning as a sentence constituent on grammar education as a language inquiry course which applies them to Chinese classics reading other than the school grammar subject to the result-centered curriculum which fixed the concept of a sentence constituent as a fast & hard object, and gets students to simply memorize it. In other words, it's definitely necessary to get a new

angle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a complement from the perspective aiming to improve the linguistic inquiry ability other than the knowledge itself of a sentence constituent.

Key Words: Curriculum, Sentence Constituent, Complement, Supplementary Nature, Synecdochic Nature(代喻性), Language Inquiry Ability